

무사고 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VI)

金 元 夏

〈교통신문·취재부장〉

지난 '90년 한해동안에도 전국에서는 243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647명이 사망하고 3,4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89년에 비해서는 발생건수가 11%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형교통사고 가운데 40.7%는 중앙선침범으로, 32.5%는 안전운전불이행으로, 4.5%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운전이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 3~10년 경력의 운전자들이 일으킨 사고가 42%나 되고 있다. 결국 방심운전이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 T.P.O(time, place and occasion)에 적응시켜 주의력을 잘 배분할 것

운전중에는 여러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가지 일에만 골몰하여도 위험하며, 반대로 지나치게 산만하여도 물론 위험하다.

도로나 교통의 상황,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 적절히 주의력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가지에서는 전방은 물론 후방과 좌우 측방에 대한 주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의력 배분이 필요하다.

42. 결눈질할때에도 T.P.O를 준수하라

물론 결눈질 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그러나, 담뱃불을 붙인다거나 라디오나 카세트 등을 조작할 때 잠시나마 결눈질을 할 때가 많다.

주행중에 이러한 행동은 피해야겠지만 주의의 상황을 잘 확인하고 담뱃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취할 때에는 T.P.O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3.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그대로의 흐름이란 있을 수 없다

시가지에서 교통이 지체되어 느릿느릿 진행하고 있을 때 약간의 방심으로 추돌사고가 잘 일어난다. 이는 앞차가 흐름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 결과에 의한 것이다.

지체되어 느릿느릿 진행하고 있을 때일수록 흐름이 언제 정지할는지 예측할 수 없다. 속력이 낮기 때문에 하고 방심하여 운전하지 말고, 더우기 결눈질도 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심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심운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4. 주행차선 하나를 정하고 함부로 진로변경은 하지 말 것

차선이 그어져 있을 때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행차선은 될 수 있는 한 하나를 정하여 쓸데 없는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여유있는 운전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차의 흐름의 간격이 별로 없는 곳에서 택시들이 지그재그로 진로를 바꾸며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별로 빨리 가지도 못한다. 이런 운전이야말로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운전이다.

45. 앞차가 어떤 차인가에 따라 차간거리를 유지할 것

차간거리는 주행속도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앞차의 차종에 적용한 차간거리인 것이다.

공차인 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히 진로를 바꿀 때가 종종 있으며, 대형화물차 등은 상상외로 급제동을 걸 때가 많기 때문에 주행할 때에는 앞차의 차종에 적용한 차간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46.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우선 신호를 보내라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도로측단에 정차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진로를 변경한다는 신호(깜박이)를 보낼 것. 아무 예고도 없이 감속을 하면 후속차가 급브레이크를 걸게 된다. 때문에 감속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고 약 3초후 진로를 변경한다든가 정차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이다.

47. 횡단보행자를 조심하라

보행자(자전거 포함) 사고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교통사고 전체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치사율 또한 2.8%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보아넘길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유형은 주행중인 자동차가

횡단보행자를 들이받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8. 보행자가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 것

보행자도 물론 교통규칙에 따라 통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로서는 그 보행자가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규칙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의무감이 없는 보행자가 의외로 많은 것이다.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해도 안전에 충분히 대처하기 위하여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9.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다. 어린이는 위험의 대상이다

보행자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는 상상외의 행동을 취하는 수가 많다. 어린이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도 높지만 우선 운전자인 자신이 철저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이나 학교 또는 유원지 등의 부근에서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어린이들의 놀이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지역을 염두에 두었다가 그곳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50. 보행자는 자동차쪽에서 피해주겠거니 믿고 있다

운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행자들은 언제나 차를 주의하며 보행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노인들은 더 그렇다.

이러한 보행자의 대부분은 자동차쪽에서 자기를 피해가겠지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를 보고 있다고 하여 방심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보행자측의 피양을 기대하지 말고 운전자도 적극적으로 양보해야 된다.

(다음 號에 계속)